



K-베이커리  
미국 시장  
정조준  
L1



Life

SSG닷컴  
장보기 시장  
1위 탈환 승부수  
L2



# 안전 지키고, 미래 설계하고... 현장 밖으로 퍼진 ‘책임의 전류’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삼성의 경영철학과 핵심가치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에 핵심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모습이다.

안전 최우선 가치로... 현장 안전문화 조성  
응급조치·심폐소생술 교육... 위기상황 대처  
소방·지진 안전교육 등 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  
협력사 100개사 교육... 안전수준 향상 노력

#### ◆“안전이 최우선”... 현장 안전문화 정착 박차

삼성전기는 ‘안전환경이 경영의 최우선이다’라는 경영원칙 아래 전사적인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진과 관리자·감독자 등 각 계층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 중이다.

삼성전기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성과는 실제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24년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심정지 증상을 보이자, 이를 인지한 동료 직원들이 즉시 사내병원과 방재센터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또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 안전체험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삼성전기 임직원들은 소방안전부터 지진안전 실습, 응급처치 등 6가지 테마를 구성해 실제 위험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받는다.

아울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환경경상’ 시상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안전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협력사의 안전 수준 향상 제고에도 노력 중이다. 삼성전기는 지난 2016년부터 협력사 안전교육을 시작했으며 참여 기업 수는 43개사에서 지난해 100여개사로 늘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교육으로 협력사 실무자와 경영진의 안전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전기준을 준수해 작은



(오른쪽에서 두번째)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이 경기도 수원市の매원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근절 팸플릿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삼성전기

위기도 지나치지 않고 관심있게 살핀다”며 “위기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호부터 자립 지원까지... 청소년 미래 키운다

삼성전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회사는 ‘푸른코끼리’ 사업의 주관사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으며, 삼성 7개사 관계사와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 예방 전문 NGO),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지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코끼리는 사회적 난제인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전사회적 역량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사업이다.

지난 2022년부터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림클래스’ 교육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 중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어·수학 학습을 비롯해 SW교육과 진로 멘토링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중심 교육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 ‘희망디딤돌’에도 참여한다. 만 18세가 돼 아동양육시설 퇴소 또는 위탁가정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직무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 ◆임직원 참여형 나눔·봉사로 지역사회와 상생

임직원들도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사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국내 사업장에 ‘나눔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나눔 키오스크는 임직원이 사원증을 태깅하면 1000원씩 기부되는 시스템으로, 지역사회 NGO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추천받아 500만원이 모금되면 후원 아동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교육여건 열악한 학생 대상 ‘드림클래스’ 교육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희망 디딤돌’ 참여해

#### ‘나눔 키오스크’ 설치... 10명 중 9명 기부 동참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찾아 재능기부 봉사도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키오스크 설치 이후 국내 삼성전기 임직원 10명중 9명에 해당하는 1만명 이상이 기부에 동참해 2024년 기준 총 8억 2000만원의 후원금이 모여 누적 162명의 아동을 후원했다. 후원은 1회성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습 지도, 피아노 레슨, 미술 교육 등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동들의 미래 성장을 돕고 있으며 어린이날과 명절,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는 선물 전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선한 영향력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 삼성전기 임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위한 비대면 밀بان만 만들기 및 밀키트 제작 지원, 공부방아동의 학습 지원과 신체 발달을 위한 배드민턴 강좌, 보육시설 아동 생일잔치 후원, 혈액수급난 해소 위한 임직원 헌혈 캠페인, DIY봉사활동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삼성전기는 상생추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기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삼성전기 임직원들이 나눔 키오스크 태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메트로 한줄뉴스



▲부활한 ‘황소’ 황희찬...북중미월드컵 앞둔 흥  
명보호엔 ‘청신호’  
▲‘김민재 결장’ 뒤편, 볼프스부르크 8-1 대파...  
개막 16경기 무패 /사진 뉴시스

▲펜싱 이해인, UAE 에페 월드컵 여자 개인전 동  
메달...단체전도 준우승  
▲탁구 장우진, WTT 챔피언스 도하 준우승...대  
만 린원루에 0-4 완패

▲이성훈, 신한투자증권 G투어 1차 대회 우승...  
통산 6승  
▲1200년 만에 다시 올린 ‘에밀레종’...성덕대왕  
신종, 보존상태 ‘안정적’